

보도일시

2025. 05. 08. (목요일)

담당자

김명섭 공보팀장 010-6734-0770

E-mail

we.with.ks@gmail.com

김경수, "울산에서부터 압도적 정권교체 시작하자"

- 김경수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 참석
- 김 위원장, "이재명 후보만이 유능한 일꾼, 유능한 해결사라는 점 알리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민주홀에서 열린 울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에 참석해 대선 승리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를 대표해 울산시당선대위 출범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의 내란으로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당원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상황이 이제는 일단락됐다”고 말하며 “그간의 과정은 대법원조차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함께 싸워 준 국민과 당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사법리스크를 막는 운동”이 아닌, “진짜 선거운동”을 하자며 울산 시민들에게 이재명후보만이 “유능한 일꾼, 유능한 해결사”라는 점을 알리자고 호소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해 부울경 지역이 위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부울경 지역을 “전통 제조업을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시키고, AI와 디지털을 결합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만이 울산과 부울경의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후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울산 지역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며 “2024년 총선 때 정당득표율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국민의힘 득표율보다 많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해내보자”며 당원들을 격려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울산에

서부터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길로 함께 가자” 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선호, 송철호 울산시당상임선거대책위원장, 오상택, 전은수, 박성진, 김태선, 이동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울산시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상임선대위원장 임명장 수여, 울산승리본부 및 울산대통합본부의 비전 발표, 타운홀 토크, 경청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끝.

<붙임1>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울산시당 선대위 출범회의 참석 사진 <별첨>

<붙임2>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울산시당 선대위 출범회의 인사말 전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울산시당선거대책위원회 출범회의> 인사말 전문

- 일시 : 2025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민주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당원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말은 짧게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감사 인사와 한 가지 당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는 여기 계신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걱정 많으셨죠? 대법원의 내란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말 끝까지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까지 우리 당원들이 할 정도로 내란이 지속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 이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대법원조차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우리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이번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대위 회의니까 그래도 중앙당 선대위에서 여러분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총체적인 위기를 누가 잘 극복할 것인가를 뽑는 선거가 이번 대선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유능한 일꾼, 유능한 해결사 누구니까? (이재명!)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볼게요.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유능한 일꾼 누구입니까? (이재명!) 여러분께서 이제 선거운동 하실 때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에서 사법리스크를 막는 그런 운동이 아니고 진짜 선거운동을 합시다. 우리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울산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유능한 일꾼, 유능한 해결사,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대한민국도 위기지만 울산이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울경이 모두 위기입니다. 전통 제조업들이 빠르게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전통 제조업을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시키고, AI와 디지털을 결합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

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만이 우리 울산과 부울경의 위기도 해결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 유능한 일꾼이 우리 지역에서 일을 제대로 해주려면 그래도 표라도 한표 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겨 놓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작년 총선 때 정당득표율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을 합하면 국민의힘 득표율보다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냅시다. 이번 대선에서 울산이 정권교체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시오. 우리 울산 시민들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반드시 울산에서부터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길로 함께 갑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부터 압도적인 정권교체 만들어 갑시다. (구호)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고맙습니다.